

## 지성 함양을 위한 텍스트로서의 ‘고’전문학

신현웅\*

### 〈차 례〉

1. 고전문학의 위상 하락
2. 차이 인식 활동으로서의 고전문학 작품 감상
3. 지성(知性, Verstand) 함양 텍스트로서의 ‘고’전문학
4. 고(古)와 전(典)의 균형 잡기

###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고전문학 작품이 옛 것[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지성(知性, Verstand)을 함양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셋이다. 첫째, 작품의 현실을 보니 고전문학의 위상이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하고 있으므로 그 소용이 다해 가는지 의문이 들었다. 둘째, 고전문학이라는 어휘가 가진, 의미의 중의성으로 인해 고전으로서 지위를 갖지 않은 전근대 문학 일부에 과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셋째, 전근대 문학 가운데 고전의 지위를 가진 작품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대학에서 강의를 준비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본고에서는 다음의 논의를 진행했다.

1장에서는 고전문학의 위상 하락이라는 현실을 진단하여 고전문학의 가치를 논의해야 할 명분을 마련했다. 이어서 2장에서는 고전문학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초점화하기 위해 송순의 시조 작품 〈십년을 경영하여~〉의 실제 감상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감상자와 작품의 시간적 거리에 개입된 문학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언어 질감의 차이가 감상자로 하여금 선행에 형성된 익숙한 개념을 헤아려 보도록 작용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3장에서는 2장의 분석 결과를 칸트의 지성 개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전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감상자의 지성이 함양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로써 지성 함양은 감상자가 작품과의 거리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줄이기 위해 ‘그때, 저기, 그(녀)’의 언어를 ‘지금, 여기, 나’의 언어로 가져와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기인하고 함양의 정도는 그 노력의 정도에 따른다는 점이 드러났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고전문학 작품이 감상자의 ‘지금, 여기, 나’의 시대와는 거리가 있는, ‘그때, 저기, 그(녀)’의 다른 문학환경에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고(古)로 인해 발생하는, 언어 질감의 차이 자체가, 세계를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지성을 함양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이 조명되었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단초가 된다. 첫째는 연구자가 전근대 문학 일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교수자가 교육현장에서 강의할 작품을 선별할 때의 어려움이다. 셋째는 그 선별 결과에 대한 불안과 불확신이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고’전문학에 놓이던 중심이 ‘고’전문학으로도 다소 옮겨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근대 문학, 고전교육, 순수이성비판, 칸트, 인지편향

## 1. 고전문학의 위상 하락

본고의 목적은 고전문학 작품이 옛 것[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지성(知性, Verstand)을 함양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고전문학연구는 인문학의 주요 분과이다. 고전문학 작품은 학교 교육에서는 물론 교외 교육에서도 필독할 가치가 있는 텍스트로 다뤄진다. 출판시장, 언론매체에도 고전문학의 중요성과 긍정적 가치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글이 흔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고전문학의 가치에 대한 재론은 쓸데없는 논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고전문학의 가치가 현시대에도 여전히 긍정됨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 과정에서 고전문학 작품의 비중은 감소해 왔다.<sup>1)</sup> 대학교육현장에서는 고

1) 건국 과도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중등교육 교과서 수록 고전문학 작품의 수록이 점차 줄어들었다(조희정,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 - 건국 과도기부터

전문학을 다루는 교과목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교양교과과정에서 고전문학을 다루는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어 왔다. 교육현장에서 고전문학의 위상이 이렇게 낮아지는 실상은 고전문학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평가하는 분위기와 매우 모순적이다. 물론 신화, 전설, 무가, 판소리 등의 구비문학은 웹툰, 영화 등의 재료로 활용되는 데에 선호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화콘텐츠 교과목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sup>2)</sup> 이는 구비문학에 국한된 현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고전문학이 활용되는 실상을 말미암는다면 고전문학의 가치는 그 중요성을 역설하는 정도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소용이 다 되어간다는 의구심이 든다.

고전문학의 실질적 위상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을 그간의 언어생활사에서 찾을 수 있다.<sup>3)</sup> 갑오개혁 이전의 언어문화는 한문이 고급 문자언어로서 높은 위상을 지닌 상태에서 한국어문으로 일상생활을 한 이중언어체계 문화였다. 이러한 문화에서 고전이라 하면 중국의 당송 시대까지의 문학을 중심으로 하되 비평 활동을 통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별되어 공인된 한국한문학 작품 일부에 한했다. 한문학 작품이 고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우리글로 된 고전으로는 연시조의 전형으로 인정되어 향유된

---

제7차 교육과정까지 중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7,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288쪽).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해 중학교 교과서 수록 고전문학 작품의 수는 감소하고(조희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중학교 국어 교과서 고전문학 제재 수록 양상」, 『문학교육학』 68,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고전문학 작품 수는 증가했다(황윤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문학 교과서의 고전문학 제재」, 『문학교육학』 66,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후자의 증가는 건국 과도기 이후의 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고전문학 작품의 감소에 비해 미미한 변화이다.

2) 이러한 추이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문학 작품의 양상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구체적인 양상은 황윤정의 위의 논문에서 확인된다.

3) 언어문화의 문제는 '고전의 개념과 범주 인식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안대회, 「한국 고전학의 방향 -정전화와 정분화」, 『대동문화연구』 10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14~15쪽.

〈도산십이곡〉, 그것을 이은 〈고산구곡가〉, 가사의 전형으로 인지되고 향유된 〈관동별곡〉과 전후미인곡, 「구운몽」과 판소리계 소설 등으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근대에 들어 우리 문자와 글의 공적 지위가 상승하고 한문과 우리글의 위상이 역전되면서 고전의 내포도 변화한다. 고종이 1894년 11월 21일과 이듬해 5월 8일에 각각 반포한 칙령 제1호의 제14조<sup>4)</sup>와 칙령 제86호의 제9조<sup>5)</sup>로 인해 국문이 공문서 도구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문자언어로써 국문과 한문의 위상이 갑작스레 뒤바뀐다. 언어문화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며 더욱 심화된다. 근대를 갑작스럽게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은 피식민지 국가가 된다. 이로써 외래 언어로 창작된 한문학의 가치는 전대에 비해 격하되며 한문학은 온전히 긍정되기 어려운 유산이 된다. 한편 국문문학은 그 가치가 무한히 격상되며 긍정의 가치를 부여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다.<sup>6)</sup>

한국의 모범 문학으로서의 고전문학은 근대의 태동으로 인한 민족문학의 설정이라는 상황에 시급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럽의 고전 혹은 정전이 르네상스 시기를 관통하며 오랜 시간 동안에 형성되어 온 과정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해 민족주의 담론의 토대가 될 고전의 발굴이 절박했다. 이로써 고전문학 연구도 고고학적 문헌학보다는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탐구하며

4)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漢文)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혼용한다.” 『고종실록』 1894. 11. 21(이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누리집).

5) “법률, 명령은 다 국문으로 기본을 삼고 한문 번역을 첨부하며 혹은 국한문(國漢文)을 섞어서 쓴다.” 『고종실록』 1895. 5. 8.

6) 일제강점기 전근대 국문과 한문 작품에 대한 태도에 대한 논의는 박경남의 「古典과 正典개념의 분리 재정립을 위한 提言 - 『大學』의 古典化와 正典化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51, 우리어문학회, 2015)의 20~21쪽에 자세히 다룬다.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작품을 발굴하는 데에 중심이 놓일 수밖에 없었다.<sup>7)</sup> 이 과정에서 발굴된 작품은 '많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널리 읽혀 전범[典]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시간이 짧았다. 일부 작품이 학계에서의 깊은 논의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더라도 해당 작품을 고전으로 범주화 하기에는 다소 선부르다.

전근대 작품의 대부분은 고전화 혹은 고전형성 과정 위에 있다.<sup>8)</sup> 이 점은 건국 과도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 중등 국어 교과서의 고전문학 작품 수록 양상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해당 기간 동안의 교과서에는 총 249편의 고전문학 작품이 수록되었다. 이 가운데 일곱 차례 이상 수록된 작품은 「심향전」, 「춘향전」, 「홍길동전」, 〈훈민정음 서문〉, 〈오우가〉, 「용비어천가」 제2장과 제12장, 〈관동별곡〉에 그치며 여섯 차례 수록된 작품은 총 9편이다.<sup>9)</sup> 교과서에 꾸준히 수록된 작품이 2.5%에 그치는 현상은 전근대 특정 작품이 제도적인 공인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물론 제도적으로 공인받은 작품은 정전이지만, 정전의 다수가 고전에서 선별되므로 정전이 형성되지 않은 실상에서 고전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을 읽어낼 수 있다.

7) 정병욱은 「고전과 현대문학의 제문제」에서 “고전이나 전통의 탐구가 항상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대적 의미, 곧 현재적 요청에다 그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문학산고』, 신구문화사, 1959, 45~46쪽).

8) 본고에서는 고전·고전화·정전·정전화에 대한 개념을 아래와 같이 엄밀하게 구분한 박경남의 개념 규정을 따른다.

- 고전(古典, Classic):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혀 모범이 될만하다고 인정된 작품.
- 정전(正典, Canon): 국가 권력이나 그에 준하는 집단에 의해 그 권위적 가치가 보존 유지되고 있는 작품.
- 고전화·고전형성(古典化·古典形成, Classic Formation): 어떤 텍스트가 일군의 지식인·학자·대중들에 의해 널리 읽힐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인정되는 과정.
- 정전화·정전형성(正典化·正典形成, Canon Formation): 어떤 텍스트가 국가 권력이나 그에 준하는 집단에 의해 교과과정으로 제도화되어 모범적 텍스트로 공인되는 과정.

9) 조희정(2005), 앞의 논문, 289~313쪽.

중등교과과정에서 작품이 정전의 위상을 갖지 못하는 현상, 정전의 위상을 갖지 못한 작품이 중등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지는 현상은 대학교육에서의 교육텍스트 선정의 어려움과 맞물린다. 만약 대학의 학습자가 의무교육과정인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에 전근대의 특정 작품, 곧 정전을 공통으로 학습한다면 대학의 교양교과목 교수자는 학습자의 전근대 작품에 대한 지식, 이해, 태도를 가늠하기가 수월해진다. 그만큼 학습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따라 대상 텍스트를 선정하는 일도 지금보다 까다롭지 않게 된다. 곧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고전문학에 대한 공통 학습의 부족으로 인해 대학 교양교육의 교수자는 텍스트의 선별부터 어려움을 겪는다.<sup>10)</sup> 물론 대학 교양교육은 자유학예과정이므로 정전보다는 ‘지금, 여기’를 성찰할 수 있는 텍스트가 발굴될 수 있고 발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중등교육과정에

10) 대학교육에서의 고전문학 강의의 어려운 현실에 대응하여 한국고전연구학회에서는 2007년에 전공 교육에서의 고전문학 교육 방법론을, 2010년에 교양교육에서의 한국 고전문학 활용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선구적으로 열었다. 그 결과로서 아래의 연구논문이 『한국고전연구』 15와 22에 각각 게재되었다.

· 『한국고전연구』 15: 정병헌, 「대학 고전문학 교육의 현상과 전망」; 권순궁, 「대학 고전소설교육의 지향과 방법」; 신동훈, 「21세기 구비문학 교육의 한 방향 -“신화의 콘텐츠화”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철, 「대학생을 위한 고전시가 “교육”의 몇 가지 키워드」.

· 『한국고전연구』 22: 김종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교육의 과제」; 신상필, 「대학 교양으로서의 한문교육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 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이수곤, 「인문교양으로서의 고전시가 강좌의 한 예 -“이중자아”와 “금지된 사랑, 불륜” 모티프를 대상으로-」; 강성숙, 「구비문학 관련 강좌의 현황과 교양 과목으로서의 구비문학」.

이후 여타 학술단체의 학술대회에서 유사한 기획 주제가 다뤄지지 않았으나 고전문학연구자의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고전문학을 텍스트로 삼은 수업 결과에 대한 보고와 분석을 담은 논문들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교양교육에서의 한국고전문학 활용에 관한 주요 논문으로 다음의 두 편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정선희,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문학의 역할과 의의」,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97~426쪽; 박경주, 「대학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그 방향성 모색」, 『고전문학과 교육』 4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5~37쪽.

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전의 학습이 기초적으로 이루어질 때 용이하다.<sup>11)</sup>

정전 또는 고전의 형성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지금의 학습자가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 고전문학의 사명 혹은 역할에 대해 초점을 두고자 한다. 3~4인 규모의 핵가족 사회가 심화된 상황에서, 대학 생의 인간 이해에 대한 시야는 대가족 사회가 가지는 다양한 구성원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시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기 마련이다. 아울러 골목이나 마을 단위에서 맺던 인간관계는 거의 사라졌으며, 공교육이나 사교육 과정에서 맺는 관계도 매우 좁아진 상황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관계가 양적으로 변화했다는 데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양성이 감소했다는 질적 변화까지 읽어내야 한다. 곧 한국 사회에서 타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좁아지고 알아져 온 것이다. 이는 현시대에 일어나는 가르기와 혐오 등의 현상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판단된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이상의 현상에 있어서 고전문학의 사명이나 역할이 무엇인지에 놓여 있다. 고전문학이 학습자의, 세계와 인간에 대한 감각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감성과 인성의 토대가 되는 지성을 함양하는 데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가 궁금하다. 이에 본고의 2장에서는 학습자의 고전문학 작품 감상 사례를 자료로 삼아 그 감상 특징을 분석한다. 후술하겠지만 여기에서 '차이' 인식이라는 감상 특징이 주목될 것이다. '차이' 인식은 지성의 문제와 연결되는 바, 3장에서는 2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성 함양 텍스트로서 고전문학의 가치를 조명한다. 4장은 이상의 논의가 가지는 함의에 대한 논술이다.

11) 중등교육과정에서 특정 작품의 공동학습이 진행된다면 학습자가 동일한 작품을 학습한 경험이 존재되므로 대학에서는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룬 작품을 보완하며 심화하는 방향을 수립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선별하여 강의하기가 다소 수월해진다.



위의 활동지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송순의 〈십년을 경영하여~〉를 읽고 현대어로 바꾼 후(제1번)에 현대어로 바꾸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제2번), 내용이나 표현에서 신선하게 다가온 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왜 그런지(제3번), 만약 상투적으로 다가온 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왜 그런지(제4번)를 차례로 물었다. 학습자가 중등교육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시조에 대한 기대지평이 자연 속에서 음풍농월하며 구가하는 안빈낙도, 안분지족으로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려삼간, 달, 청풍, 강산 등이 주요 시어로 활용된 〈십년을 경영하여~〉가 학습자에게 내용이나 표현 면에서 그다지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으리라 예상되었다.<sup>12)</sup>

신선함에 대한 제3번 문항에 대한 응답을 보니 응답이 예상에서 다소 벗어나 고전문학 감상 활동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응답을 분석하면 달과 바람이라는 자연물에 방을 내어준다는 상상이나 표현이 학습자에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sup>13)</sup>

- 가. 방을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물건으로 채우지 않은 점
- 나. 자연물을 의인화한 점

위의 '가'와 '나'는 〈십년을 경영하여~〉가 학습자에게 신선하게 다가온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는 학습자가, 방을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이거나 옷방, 서재와 같이 사람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여긴 생각과의 차이(가)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자연물을 대상화한 생각과

12) 성기욱, 「송순의 시조 한 수가 들려주는 시의 꿈 하나」, 『시안』 1(2), 시안사, 1998, 61~77쪽.

13) 총 15개의 응답은 부록에 정리했다. 이하 개별 응답 인용시 부록의 번호를 괄호로 표시한다.

의 차이(나)이다. 이 차이는 방, 자연물 등의 개념에 대한, 작가와 감상자의 차이이다.

아래의 두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념 차이에서 발생한 인식의 확장과 그것에 대한 성찰이 감상의 특징으로서 발견된다.

① 열심히 집을 지어 그 집을 달과 바람에게 내어주겠다는 점과 강산을 둘러두고 보겠다는 내용이 신선하다. 평소에 자연을 이렇게까지 대하려던 마음이 얼마나 비워져 있어야 할 것이며, 얼마나 좋아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b).

② 화자 혼자 사는 집임에도 달과 바람에게 각각 방 하나씩 맡겨두고 있는 점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이 물건이 없으면 안 돼’라는 심리적 욕구 충족에 충동을 느끼며 살아가는 내게 있어 비움의 미학이나 가치에 대해 조금은 생각해보게 만든다(c).

위에서 ①의 응답자는 자신의 자연에 대한 의식을 기준으로 작품 속 의식을 헤아려 보고 있고, ②의 응답자는 작품을 감상하며 느낀 점에 자신의 소유욕을 견주어 성찰하고 있다. 여기에서 작품 감상이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이는 아래의 두 응답자가 작가의 의식이나 태도, 과거의 다름을 확인하는 점과 차이를 보인다.

③ 자연물에 방 한 칸씩 내어준다는 것이 이전에 봤던 시조들에서 본 적이 없는 표현이라 신선하게 다가왔다. 딱 방이 세 칸인 집에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씩 내어준다는 것은 자연과 어울리고 싶은 송순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f).

④ 달, 바람 등 자연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서술한 것 같아서 신기했다. 작은 집과 전원생활에 대한 만족이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만족스러

운 삶을 생각했을 때 참 다르다고 느꼈다(j).

위에서 ③의 응답자는 작품에서 작가의 자연친화적 태도를 발견하는 데에, ④의 응답자는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만족과의 다름에 주목한다. ③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학습자가 송순의 세계를 발견하는 데에 머무를 뿐, 학습자가 자신의 자연관과의 비교나 그것으로 인한 성찰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 점에서 ③에서는 ④와 함께 과거의 작품이 학습자의 감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확인하는 태도가 포착된다.

①~④는 감상자가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의 생각과 작품 속 작가 의식을 비교한 결과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①과 ②는 그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며 스스로를 성찰한 감상인 결과인 반면, ③과 ④는 그것으로 역사적, 문화적 차이만을 확인한 감상의 결과라고 정리된다. 전자와 후자의 감상 유형이 감상의 깊이나 방향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모두 '지금, 여기, 내가 사는 세계와는 다른 문학환경 속에서 산출되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본고의 관심은 다름을 인식하는 그 자체에 있다. 왜냐하면 차이 인식이 부재하면 인식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당초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③, ④도 작품을 깊게 이해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 해당 응답을 작성한 학습자도 교수자의 교수 방식과 태도에 따라 충분히 ①, ②의 방향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감상의 깊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문학 작품이 '지금, 여기, 내가 사는 세계와는 다른 문학환경 속에서 산출되었기 때문에<sup>14)</sup> 발생하는 차이 자체는 세상과 인간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형성되는 토대가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는 생득적이든 생후적이든 그간 형성된 관념에

14) 고전문학의 설화적 상상력, 신화적 상상력, 낭만적 상상력, 도학적 상상력, 생태적 상상력 등이 주목되어 왔다. 이러한 상상력을 담고 있는 고전문학을 '상상력의 담지체'(심경호, 「한국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문학교육학』 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321~322쪽)라 명명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기대어 진행되기 때문이다. 베이컨(F. Bacon)은 이를 우상(idol)이라 일컬었고 현대 인지심리학자들은 인지편향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편향은 감각기관으로 수용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 물론 잡다하고 복잡한 세계가 그대로 다 인지된다면 인간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으니 그대로 인지되지 않는/인지되지 못하는 인지과정은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 진화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현상에 대한 관념이 다양해진다면 세계를 보다 다채롭게 보는 시야가 확보될 것이다. 그러므로 칸트가 정의한, 판단기관으로서 지성(知性, Verstand)이 주목된다. 지성은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의미화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 고전문학 감상이 유발하는 ‘차이’ 인식의 가치를 지성을 통해 조명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대한 논의 과정은 고‘전’문학을 읊아매는 모범[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옛 것[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고’전문학 작품이 읽을 가치가 충분한 텍스트라는 시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 3. 지성(知性, Verstand) 함양 텍스트로서의 ‘고’전문학

본 장에서는 과거 문학[古]으로서 고전문학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식 차이의 가치를 칸트의 지성(知性, Verstand) 개념에서 살펴본다. 지성은 개념을 표상하고 사유하는 능력으로서 송순 시조 작품 감상에서 일어난, 방이나 자연에 대한 인식 변화 현상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적절한 개념이다. 나아가 지성이 감각 수용 능력으로서의 감성(感性, Sinnlichkeit)이 아닌, 외부 세계의 자극을 수용하거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로서의 감성(感性) 혹은 감수성(感受性)과도 유관하다. 이로써 본고의 “고전문학 작품이 옛 것[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지성(知性, Verstand)을 함양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려는 목적에 가까이 다가서

리라 기대된다. 논의는 칸트의 지성 개념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해 지성과 차이 인식과의 관계를 밝혀 그 의미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칸트는 세계가 인식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감성과 지성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우리가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방식으로 표상들을 얻는 능력(곧, 수용성)을 일컬어 감성이라 한다. 그러므로 감성을 매개로 대상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감성만이 우리에게 직관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지성에 의해 사고되며, 지성으로부터 개념들이 생겨난다.<sup>15)</sup>

위에서 감성과 지성은 각각 '대상을 얻는 수용적 능력'과 '표상을 사유함으로써 개념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르면 세계가 감각기관에 부딪혀 촉발된 표상이 감성으로 수용되면 지성에서 해당 표상을 대상으로 개념적 사유가 진행된다. 아래 사진을 이용해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본다.



15)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순수이성비판』 1, 아카넷, 2006, 40쪽(A19=B33).

우리가 현 지면을 보면 시각 기관에 상이 맺힌다. 그 상은 앞의 사진과 그 주변을 둘러싼 전체이다. 감각기관에 맺힌 상은 이제 우리 마음에 표상된다. 감성은 이 표상을 수용해 유사 색이나 개체의 형태에 따라 정보를 정리한다. 이 정리는 감성의 다소 소극적인 능동적 활동으로서 일람작용(一覽作用, Synopsis; 概觀)이라 정의된다. 일람작용으로 인해 잡다하게 주어질 대상들은 ‘서로 곁하여’, ‘서로 잇따라’ 질서가 부여된다.<sup>16)</sup> 이 일람작용으로 인해 지면의 흰 부분(바탕), 검은 부분(글씨), 사진의 경계가 구분되고 사진 속 잡다한 상의 경계도 세워진다. 이로써 지성이 대상을 인식할 바탕이 마련된다. 이제 지성은 선형적으로 형성된 개념을 가지고서 감성의 일람작용을 거친 표상의 정체를 인식한다. 지성 속에 보관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사진 중앙의 두 그루 나무가 은행나무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지성의 표상 인식과 사유 과정에 초점을 두고서 송순의 시조 작품 감상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성의 표상 인식과 사유 과정 속에서 학습자가 작품에서 신선함을 느꼈으며 이것이 ‘고’전문학 작품의 현재적 가치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2장에 제시한 ①과 ②의 감상은 학습자가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의 생각을 헤아려 보기도 하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③·④의 감상은 학습자가 과거의 작품이 현재적 감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①·②와 ③·④의 감상 차이가 개인의 작품 감상 능력과도 관계되겠다. 그러나 질의문 제1번부터 제4번까지의 순차적 응답과정을 고려하여 응답 내용을 살펴보니 제3번의 신선함에 대한 응답이 제2번 ‘현대어로 바꾸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와 유관했다.

다음은 ①~④의 응답자의 제2번 응답이다.

16) 백종현(2006), 『「순수이성비판」 해제』, 위의 책, 40쪽.

- ①' 초·중·종장을 문맥에 맞게 이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지만 현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는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매끄러운 해석을 위해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도 될지 조심스러웠다.
- ②' '경영'이라는 말의 의미를 '초려삼간'과 엮어서 현대어로 바꾸려고 하니 마땅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다. 이 '경영'이 돈을 벌어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마련해 놓는 과정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든다.
- ③' 당시 쓰던 말과 현대 쓰는 말이 조금씩 달라서 뜻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웠다.
- ④' 한자어 풀이가 어려웠다. 의미는 해석이 되는데 시조다 보니 시의 분위기도 살려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어렵다.

위의 ①'~④'의 응답 모두는 당대 어휘를 지금의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바꾸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①'·②'의 응답자가 ③'·④'보다 현대어로 바꾸는 데에 상대적으로 더 고심한 흔적이 발견된다. ①'의 응답자는 현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을 찾는 데에 고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적절성조차 우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②'의 응답자는 특정 단어의 적절성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③'의 응답자는 언어의 차이만을 확인하고 있으며 ④'의 응답자도 작품을 현대어로 바꾸는 어려움만을 반복적으로 기술했다. 그러므로 ①'·②'와 ③'·④'의 감상 차이가 작품이 창작된 '그때, 저기, 그(녀)'의 언어를, 작품을 감상하는 '지금, 여기, 나'의 언어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바꿀 것인지라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판단이 든다.

상기 노력을 염두에 두고 ①'의 감상을 다시 살펴보자. ①'에서는 초장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 내니'가 "열심히 집을 지어"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초려삼간은 집에, 10년의 경영으로 지어낸 행위는 열심히 지은 행위에 대응된다. 초가 세 칸은 '거주하는 장소'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집이라는 어휘가 선택되었다. 10년의 경영은 '긴 시간의 노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보조동사 '내니'도 힘든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열심

히'라는 어휘가 선택되었다. 이 과정에서 감상자는 공들여 지은 집의 일부를 자연에게 맡겨 비워두는 행위를 통해 화자의 지극한 자연애를 느꼈다. 이로써 ①의 감상자에게는 '무한한 자연애'라는 관념이 창출되었다. 여기에서 감상자의 자연애와 관련한, 지성의 함양이 포착된다. 감상 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성의 확장을 ②에 적용한다면, ②에서는 공들여 지은 집을 자신만이 독차지하지 않고 나눌 수도 있다는 인식, 비움과 여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통해 지성이 함양되는 실상이 포착된다고 하겠다. ①과 ②의 감상자는 문확환경에 있어 차이가 큰 작품의 언어를 현재의 자기 언어로 바꾸는 노력을 통해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했다. 이 노력으로 인해 둘에게는 지성의 함양이 일어난 것이다.

①과 ②의 감상 과정에 비해 ③과 ④의 감상 과정은 단순하다. ③에서는 중장의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 두고'가 '자연물에 방 한 칸씩 내어준다'로 표현된다. 달과 청풍은 자연물로 통칭된다. 책임지고 담당하게 하는 '맡겨 두고'가 제공하거나 빌려주는 정도의 '내어준다'로 바뀌었다. ④에서는 상기 시구가 '달, 바람 등 자연물'의 소유로 이해된다. ③에서와 같이 달과 청풍은 자연물로 통칭된다. '맡겨 두고'는 자신의 집에 들인다는 시선에서 자연물을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는 지성이 개별 대상 상위 개념어로 범주화하는 정도나 단어를 부적절하게 선택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다. 감상자는 '지금, 여기, 나'의 언어로 바꾸는 것보다 '그때, 저기, 그(녀)'의 언어를 정리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지성의 함양이 유의미하게 포착되지 않는다.

①', ②'의 과정을 통해 ①, ②의 감상에 이르는 경험, 곧 '그때, 저기, 그(녀)'의 언어와 '지금, 여기, 나'의 언어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사이를 줄이려는 과정에서 감상의 깊이가 확보되는 경험은 원문을 다루는 연구자들이 모두 경험했을 터이다. 향찰을, 중세국어, 전근대의 근대국어를, 시기에 따른 한문을 '지금, 여기, 나'의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작품 자체부터

그것을 둘러싼 환경까지 아울러 이해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古)와 지금[現]의 거리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언어 질감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지성의 활동을 활성화한다. 이는 고(古)와 지금[現]의 거리 차이가 지성을 함양하는 중요 토대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로써 전근대의 근대국어 작품에서 중세국어 작품으로, 중세국어 작품에서 향찰 작품으로 나아갈수록, 곧 거리가 멀면 멀수록 문학환경의 차이가 커짐으로서 그 지성의 함양이 상대적으로 증대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만 여기에는 그 차이를 '지금, 여기, 나'의 문화와 언어로 가져오려는 노력이 전제가 된다.

#### 4. 고(古)와 전(典)의 균형 잡기

논의를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상 본고의 논의에서는 고전문학의 위상이 하락하는 실상과, 세계와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좁아지는 세대에 대응하여 고전문학이 옛 것[古]이라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는 지성의 함양에 있다는 점에 대한 논증을 시도했다. 논증은 송순의 시조 작품 〈십년을 경영하여~〉의 고등교육 학습자의 실제 감상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분석 결과, 고전문학 작품은 감상자와 작품의 시간적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언어문화적 차이 때문에 감상이 까다로운 텍스트이지만 까다로움이 도리어 감상자가 선행에 형성된 익숙한 개념을 헤아려 보도록 작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분석 결과를 칸트의 지성 개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전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만나는 새로운 대상과 그 개념이 감성을 통해 마음에 표상되면, 지성이 선행의 개념을 토대로 삼아 표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성이 함양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함양의 정도는 감상자와 작품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그 때, 저기, 그(녀)'를 '지금, 여기, 나'로 가져오는 노력의 정도를 따른다.

상기 논의는 고전이 왜나 다른 문학환경에서 산출된 옛 것[古]이기 때문  
 에 그것을 ‘지금, 여기, 나’의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지성이 함양  
 된다고 정리된다. 이 정리는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그간의 태도에 대한 반  
 성을 불러온다. 고전문학의 고전(古典)은 한문문명권의 전통적인 의미와  
 서양어의 근대 번역어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전자는 고대[古]의  
 전적[典], 곧 과거의 주요 문헌이라는 의미의 어휘로서 전근대 문헌을 주  
 로 가리킨다. 후자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古] 불변의 어떤 진리를 품은  
 모범적인 문헌[典]이라는 classic의 번역어이다. 불변의 어떤 진리는 시  
 대·지역·언어를 관통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어 이때의 고전은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간주된다. 전통어이자 근대어로서 ‘고전’은 상황과 문맥에 따라  
 시대성[古]과 모범성[典] 가운데 어느 한편이 강조되어 사용된다.

아래는 전근대 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주요 학회명과 학회지의 국문  
 과 영문 이름이다.

학회명		학술지명	
국문	영문	국문	영문
한국고전문학회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ssociation	고전문학연구	Journal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한국시가학회	Korean Classical Poetry Association	한국시가학회	Korean Classical Poetry Studies
고소설학회	The Society Of The Korean Classical Novel	고소설연구	The Research of Old Korean Novel
한국고전연구학회	The Research Of The Korean Classic	한국고전연구	The Research of the Korean Classic
한국고전문학 교육학회	The Society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고전문학과 교육	The Classical Literature and Education
한국고전 여성학회	The Society Of Korean Classical Woman Literature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	Korean Classical Woman Literature Studies

표에서 총 6개 학회들이 학회명이나 학술지명을 국문으로 사용할 때 ‘고전’을 사용하거나 적어도 영문으로 사용할 때 ‘Classic(al)’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들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의 연구대상은 많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널리 읽혀 모범이 될만하다고 인정된 작품만이 아니다. 우리에게 전근대 문학 가운데 고전으로 인정된 작품의 수요가 적으므로 그러한 연구만으로 학회지를, 그것도 분과별로 연간 3~4회를 간행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의 성격을 적절하게 아우른 학회명으로는, 국문으로는 ‘한국시가학회’, ‘고소설학회’ 밖에 없고, 영문으로는 ‘The Research of Old Korean Novel’ 하나 뿐이라 하겠다.<sup>17)</sup>

전근대 문학을 연구하는 단체와 그곳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서 보이는, 연구대상과 명칭의 불일치는 다음의 두 가지에서 연유한다.<sup>18)</sup> 하나는 고전이 동아시아 전통어의 의미와 서양 번역어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는 데에 있다. 곧 불일치는 의미가 다른 전통어를 서양어의 번역어로서 활용한 역사문화적 관습에서 기인한다.<sup>19)</sup> 이로써 옛 문헌[古]을 연구하면서도 그것을 모범 문헌[典]이라고 착각하거나 모범 문헌[典]을 다룬다는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해당 학술지에 수록되는 연구들이 고전(古典)

17) 주요 연구대상과 내용만 고려한다면 한국고전문학회, 한국고전연구학회,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회는 각각 한국전근대문학회, 한국전근대문학연구학회, 한국전근대문학교육학회, 한국전근대여성문학회 정도가 적당할 것이며 영문명의 classical은 old로 변경되어야 하겠다.

18) 다음의 용례는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고민한 결과이다. “한국의 문학사 연구와 대학 국문과의 문학 강좌 및 전공 영역은 크게 고대(고전)/근대(현대) 또는 전근대/근대라는 두 개의 시간 형용사적 양극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재선,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의 ‘고대’와 ‘현대’ -소설사 기술의 근대성과 기점 문제-,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 문학사의 현실과 이상: 우리문학사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새문사, 1996, 99쪽).

19) 유사한 사례로서 시가(詩歌)가 있다. 동아시아 전통어로서 시가는 시(詩)와 노래[歌]를 통칭하는 어휘이지만, 근대 학술어로서 시가는 시이자 노래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우리말 운문 작품을 이른다.

을 발굴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에는 모범 문헌을 다룬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고전문학 연구자는 고'전'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삼되 '고'전문학도 연구하여 일부 작품에 고'전'문학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므로 전근대 문학은 고전문학으로 충분히 불릴 만하다. 그러나 고전문학이라는 어휘의 중의성으로 인해 '고'전문학까지 고'전'문학으로 인식하여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아울러 고'전'문학으로 함의된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준비할 때 작품을 선별하기도 어렵고 선별 후에도 그 선별과 가치에 대해 확신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근대 문학이 옛 것[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읽을 가치가 있다는 논의는 과도한 의미 부여, 선별의 어려움, 선별 결과에 대한 불확신을 해소하는 단초가 된다. 왜냐하면 감상자가 옛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 시간적 거리만큼 차이가 나는 문학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언어의 질감을 섬세하게 다루는 과정에서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 지성의 함양이 초래되기 때문이다.<sup>20)</sup>

지성은 선험적 개념을 재료로 삼아 감성의 표상을 파악하고 정리하고

20) 전근대와 근대 사이가 단절되었다고 표현될 정도로 그 불연속이 크다. 이는 근대 이전과 이후의 감성 구조가 판이하다는 의미이다. 2022년 11월 9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03회 휴먼아카데미에서 '판소리, 누군가의 이야기'라는 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연자인 안이호 소리꾼(밴드 이날치 보컬)은 판소리를 하면서도 판소리가 왜 좋은지를 자문하던 중에 자신은 물론 절대다수가 서양 고전음악을 들을 때에는 그러한 자문 없이 '아, 좋다'라고 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소리꾼조차 우리 음악을 그냥 좋아할 수 없었다는 고백은 그만큼 '지금, 여기, 우리'의 감성 구조가 서양의 그것에 잇대어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감성 구조의 차이가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전시를 현대시를 대하듯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고전시는 새로움을 발견하기 어려운 친편일률적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선행연구에서는 고전시와 현대시를 텍스트의 소통 매커니즘, 시적 언어의 기능, 시적 가치의 덕목을 기준으로 대조하여 고전시를 섬세하게 읽어나가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성기욱, 『고전시와 현대시의 미학적 패러다임』,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성기욱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출판, 2004, 89~108쪽).

사유하는 기관이다. 이 때문에 동일 대상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도 인식된다. 리처드 리스벳은, 지리준, 장지용과 함께 중국, 대만,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팬더, 원숭이, 바나나 가운데 가장 관련되어 있는 두 개를 고르도록 했는데 미국 대학생들은 팬더와 원숭이를, 중국과 대만 대학생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골랐다.<sup>21)</sup> 동일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범주화가 된 이유는 동물이라는 범주적 사고와 원숭이-바나나의 관계적 사고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는 지성의 활동이 문화적 관습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증거로서 지성 능력이 차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함양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고전문학이 감상자의 '지금, 여기, 나'의 시대와는 거리가 있는 '그때, 저기, 그(녀)'의 다른 문학환경에서 산출되었기 발생하는 차이, 곧 고(古)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 자체가, 세계를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지성을 함양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고전문학의 이러한 가치에 대한 인식은 고'전'문학에 놓이던 중심이 '고'전문학으로도 다소 옮겨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써 고'전'문학이 '고'전문학과 균형이 잡혀나가리라 기대된다.

21) 리처드 니스벳, 최인철 옮김, 『생각의 지도』, 2004, 김영사, 137~138쪽.

## 참고문헌

1. 고전연구학회 주최 대학의 고전문학 교육 논의(학술지 게재 순)  
정병헌, 「대학 고전문학 교육의 현상과 전망」,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5~26쪽.
- 권순궁, 「대학 고전소설교육의 지향과 방법」,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27~58쪽.
- 신동훈, 「21세기 구비문학 교육의 한 방향 -“신화의 콘텐츠화”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59~87쪽.
- 김종철, 「대학생을 위한 고전시가 “교육”의 몇 가지 키워드」,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89~114쪽.
  
- 김종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교육의 과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30쪽.
- 신상필, 「대학 교양으로서의 한문교육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31~54쪽.
-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5~82쪽.
-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 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83~121쪽.
- 이수곤, 「인문교양으로서의 고전시가 강좌의 한 예 -“이중자야”와 “금지된 사랑, 불륜” 모티프를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23~161쪽.
- 강성숙, 「구비문학 관련 강좌의 현황과 교양 과목으로서의 구비문학」,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63~201쪽.
  
2. 연구논저  
박경남, 「古典과 正典개념의 분리 재정립을 위한 提言 - 『大學』의 古典化와 正典化 사례를 중심으로 -」, 『우리어문연구』 51, 우리어문학회, 2015, 11~49쪽.
- 박경주, 「대학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그 방향성 모색」, 『고전문학과 교육』 4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5~37쪽.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 문학사의 현실과 이상: 우리문학사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새문사, 1996.

- 성기옥, 「송순의 시조 한 수가 들려주는 시의 꿈 하나」, 『시안』 1(2), 시안사, 1998, 61~77쪽.
- 성기옥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출판, 2004.
- 심경호, 「한국 고전문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문학교육학』 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317~338쪽.
- 안대회, 「한국 고전학의 방향 -정전화와正本화-」, 『대동문화연구』 10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11~33쪽.
- 정병옥, 『국문학산고』, 신구문화사, 1959.
- 정선희,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문학의 역할과 의의」,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97~426쪽.
- 조희정,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 - 건국 과도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 까지 중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7,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277~326쪽.
- \_\_\_\_\_,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중학교 국어 교과서 고전문학 제재 수록 양상」, 『문학교육학』 68,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227~260쪽.
- 황윤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문학 교과서의 고전문학 제재」, 『문학교육학』 66,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171~221쪽.
- 리처드 니스벳, 최인철 옮김,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4.
- 임미누엘 칸트, 백종현 옮김, 『순수이성비판』 1, 아카넷, 2006.

[부록]

- a.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방을 달과 바람에게 내어준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방은 3칸이이기 때문에 강산을 들일 수 없기에 그냥 돌려놓고 본다는 표현도 신선하다.
- b. 열심히 집을 지어 그 집을 달과 바람에게 내어주겠다는 점과 강산을 돌려두고 보겠다는 내용이 신선하다. 평소에 자연을 이렇게까지 대하려면 마음이 얼마나 비워져 있어야 할 것이며, 얼마나 좋아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
- c. 화자 혼자 사는 집임에도 달과 바람에게 각각 방 하나씩 맡겨두고 있는 점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이 물건이 없으면 안 돼'라는 심리적 욕구 충족에 충동을 느끼며 살아가는 내게 있어 비움의 미학이나 가치에 대해 조금은 생각해보게 만든다.
- d. 강산을 집에 두지 못하니 돌려보고 보겠다는 표현이 신선했다. 자연을 통채로 집에 들인다는 발상이 새로웠기 때문이다.
- e. 방이 세 칸인 초가집에 3 칸을 혼자 쓰거나 사람 3명이 쓰는 게 아니라 달, 바람 등 자연물에게 한 칸씩 준다는 것이 신선했다. 또 강산이 있는 곳에 자신이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강산을 병풍처럼 돌려 보겠다는 표현도 신선하게 다가왔다.
- f. 자연물에 방 한 칸씩 내어준다는 것이 이전에 봤던 시조들에서 본 적이 없는 표현이라 신선하게 다가왔다. 딱 방이 세 칸인 집에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씩 내어준다는 것은 자연과 어울리고 싶은 송순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 g. 자연을 '방에 들인다'는 표현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현대의 감성으로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간단한 시조이지만 읽는 순간 면앙정의 모습이 머리속에 그려졌기에, 잘 지어진 시조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인의 공감과 감성을 끌어냈으므로)
- h. 자연물인 달과 바람에게 방을 한 칸씩 내어주고 강과 산은 자리가 없으니까 곁에 두고 보겠다는 표현이 신선했다.
- i. 자연을 즐기며 살겠다는 마음을 달과, 청풍, 그리고 강산 들에게 집을 내어주겠다고 표현한 것이 신선하다. 실제로는 방에서 살 수 없는 대상들을 의인화(?)한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 j. 달과 바람에게 내 집의 일부를 맡긴다는 듯한 표현이 신선했고 강산은 자리가 없으니 주변에 둘러놓고 본다는 표현에서 강산은 놓여져 있는 것이고 움직이기 어려운 것인데 작자가 둘러놓는다고 한 것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 k. 작은 집에(재물 대신) 자연을 쌓아놓는다는 표현에 오히려 더 풍요로워 보인다. 주변에 산과 강이 있다는, 자연 풍경이 좋다는 것 '집 칸이 적으니 주위에 둘러놓겠다' 표현한 것이 신선하다.
- l. 집안에 들일 수 있는 것들(달빛, 바람)과 들일 수 없는 것(산, 강)을 구분지어 표현한 것이 신선하다. 특히 달은 강산처럼 집에 들일 수 없는 것인데 들일 수 있다고 표현해서 신선하다.
- m. 달이나, 바람에게 방을 내어준다는 점이 신선하게 느껴진다. 자연물을 살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방안에 들여놓는다는 표현이 새롭다. 강산을 둘러두고 본다는 것도 흥미롭다. 원래 거기 있는 것이지만 화자가 의도적으로 둘러 놓는다는 것이 신선한 표현으로 느껴진다.
- n. 달, 바람, 강산을 의인화하여 사람처럼 대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 o. 달, 바람 등 자연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서술한 것 같아서 신기했다. 작은 집과 전원생활에 대한 만족이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만족스러운 삶을 생각했을 때 참 다르다고 느꼈다.

## ABSTRACT

## Old Literature as Text for Building up Verstand

Shin, Hyun-woong

This paper examined that classical literature is a valuable text that can building up Verstand just because it is old. The reasons for this are the following three. First, I wondered if the value of classical literature was coming to an end. Second, some pre-modern literature that does not have a status as classics may have excessive meaning. Third, it is difficult to prepare lectures at universities because the number of works with classical status is small among pre-modern literature. As a response to this, the following discussions were conducted in this paper.

Chapter 1 established a justification for discussing the value of classical literature by diagnosing the reality of the decline in the status of classics. Chapter 2 focused on the problem of the value of classical literature. The actual appreciation results of Song Soon(宋純)'s Sijo work "Managing a Decade"(십년을 경영하여~)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difference in the literary environment is involved in the temporal distance between the reader and the work. This results in differences in language texture. This difference has a characteristic that acts to make the reader understand the familiar concept formed in the good deed. Chapter 3 examines the meaning of the analysis results in Chapter 2 in Kant's concept of Verstand.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was found that the reader's Verstand was built up in the process of appreciating classical works. The building up of Verstand was caused by the reader's efforts to understand the language of 'Then, There, His/Her' in order to reduce the distance from the language of work, 'Now, Here, My'. The degree of Building up depends on the degree of effort.

The following topics were demonstrated by the discussion of this paper. Classical literature is valuable as a text that can build up Verstand just

because it is old. The reason is that classical literature works were produced in a different literary environment of 'Then, There, His/Her', which is far from the era of 'Now, Here, My' of the reader. The difference in language texture itself, which is caused by old age, is the foundation for building up Verstand so that the world can be viewed in various ways. As a result, the following three problems were solved. The first is the problem that researchers give excessive meaning to some pre-modern literature. The second is the difficulty of selecting works for instructors to lecture in the educational field. The third is anxiety about selecting. The perception of this value of classical literature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center of classical literature to shift somewhat to old literature.

**Key Words**

Pre-modern Literature, Classical education, Kritik der reinen Vernunft, Kant, Cognitive bias

논문투고일: 2022.10.25. 심사완료일: 2022.11.06. 게재확정일: 2022.11.07.
--